

공정거래위원회, 2022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SK, 현대차 제치고 2위로...두나무, 대기업 합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월 1일자로 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SK가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최초로 자산총액 기준 2위에 올랐다. 또 국내 1위 압화화페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압화화페 거래 주력 기업 최초로 대기업에 지정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한다.

SK, 올해 자산총액 291조9690억 반도체 매출·자회사 분할 등 영향 HMM 등 해운과 건설집단 성장 눈길 대우건설 인수한 중흥 47위→20위 크래프톤·보성 등도 새로 집단 합류



SK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2022년 대기업집단에서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2위에 올랐다. 스포츠동아DB

순위	기업집단명	소속회사	자산총액(조원)
1	삼성	60	483.9
2	SK	186	292.0
3	현대자동차	57	257.8
4	LG	73	167.5
5	롯데	85	121.6
6	포스코	38	96.3
7	한화	91	80.4
8	GS	93	76.8
9	현대중공업	36	75.3
10	농협	53	67.0
11	신세계	53	61.1
12	KT	50	42.1
13	CJ	85	36.9
14	한진	33	35.2
15	카카오	136	32.2
16	두산	21	26.3
17	LS	58	26.3
18	DL	42	24.8
19	부영	22	21.7
20	중흥건설	55	20.3
44	두나무	14	10.8
59	크래프톤	10	6.3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SK, 반도체 매출 증가 등으로 2위 올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SK가 자산총액 기준 대기업 순위에서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2위에 오른 것이다. 2010년 이후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순으로 변동이 없던 상위 5개 기업집단 내 순위가 12년 만에 바뀌었다.

SK의 올해 자산총액은 291조9690억 원으로 지난해 239조5300억 원 대비 증가했다. 반도체 매출 증가, 자회사 분할 설립, 석유 사업의 성장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매출 증가와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로 SK하이닉스 자산이 약 20조9000억 원 늘었다. SK온, SK에스온, SK물티유틸리티 분할 설립으로 7조 9000억 원, 석유 사업 영업환경 개선으

로 SK이노베이션 및 산하 자회사 자산이 6조2000억 원 상승했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계열사 상장으로 2조 9000억 원 늘었다.

자산총액 순위는 1위 삼성(483조 9190억 원), 2위 SK(291조9690억 원), 3위 현대차(257조8450억 원), 4위 LG(167조5010억 원), 5위 롯데(121조 5890억 원), 6위 포스코(96조3490억 원), 7위 한화(80조3880억 원), 8위 GS(76조 8040억 원), 9위 현대중공업(75조3020억 원), 10위 농협(66조9620억 원) 순이다.

해운과 건설 집단의 성장도 도드라졌다. 해운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HMM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8조 8000억 원에서 17조8000억 원으로 증가

했고, 자산총액 순위도 48위에서 25위로 급증했다. 건설 주력집단은 활발한 인수·합병(M&A)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건설은 자산총액이 9조2000억 원에서 20조3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 자산총액 순위가 47위에서 20위로 올랐다.

●자산총액 10조 이상 47곳...7곳 늘어

국내 1위 압화화페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압화화페 거래 주력 기업으로는 최초로 대기업에 지정됐다. 두나무의 자산총액은 10조8225억 원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직행했다.

두나무의 대기업 지정을 놓고 업비트

에 예치된 고객 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어 왔다. 두나무의 자산총액 중 고객 예치금은 약 5조8120억 원에 이른다. 압화화페 거래소 측에서는 금융·보험업의 경우를 언급하며 대기업집단 여부 판단 기준에 고객 자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압화화페 거래소가 금융·보험업이 아닌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인 만큼 예치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두나무가 보유한 고객 예치 코인 자산에 대해 회사의 통제 하에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익을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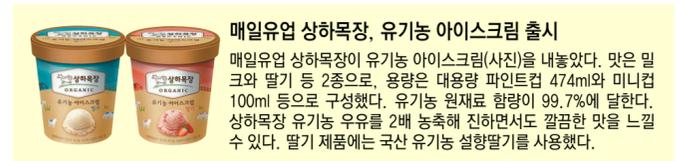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총 76개로 두나무(44위) 외에도 크래프톤(59위), 보성(70위), KG(71위), 일진(73위), OK금융그룹(74위), 신영(75위), 농심(76위) 등 8곳이 새로 지정됐다. 반면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은 제외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47개로 전년 대비 7개 증가했다. 중흥건설, HMM, 태영, OCI,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8개 집단을 신규 지정했고, 한국투자금융이 제외됐다.

한편 동일한 사망에 따라 LS그룹은 고 구자홍 전 초대회장에서 사촌동생인 구자은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구자은 회장이 최상위 회사 LS의 개인 최대 출자자(3.63%)인 점과 올해 1월1일 회장으로 취임한 점을 고려했다.

넥슨도 고 김정주 전 회장에서 아내 유정현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공동경영을 해온 유 회장이 최상위 회사 NXO의 등기임원 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 임과 동시에 개인 최대 출자자(29.43%)인 점 등을 감안했다.

정정국 기자 jjay@donga.com



매일유업 상하목장, 유기농 아이스크림 출시

매일유업 상하목장이 유기농 아이스크림(사진)을 내놓았다. 맛은 밀크와 딸기 등 2종으로, 용량은 대용량 파인트컵 474ml와 미니컵 100ml 등으로 구성했다. 유기농 원재료 함량이 99.7%에 달한다.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를 2배 농축해 진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딸기 제품에는 국산 유기농 설탕말기를 사용했다.



현대오일뱅크 차고형 프리미엄 셀프세차장. 사진제공 |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야간 프리미엄 셀프세차 도입 주유소 빈 공간 활용...사전예약 통해 이용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 셀프세차 시장에 진출한다.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세차 예약 플랫폼 1위 기업 '탐애플'과 손잡고 서울 성북구 북악셀프주유소에 차고형 프리미엄 셀프세차장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차 업계는 셀프세차 시장규모를 약 3600억, 셀프세차장 이용자수를 연간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가 개발한 실내 세차 사업모델은 주유소 내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세차기가 주간에만 운영된다는 점, 터널식 자동세차기 출구에 자동문만 설치하면 독립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현대오일뱅크의 차고형 실내 셀프세차 서비스는 자동세차기 운영이 끝난 야간 시간대에 사전 예약·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기시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실내 세차장 안에는 고압세척기, 폼건, 에어건, 조명, 냉·난방기 등 셀프세차를 위한 설비가 갖춰져 있어 예약된 시간 내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신세계, SSG닷컴-지마켓 통합 멤버십 출범



신세계의 SSG닷컴과 지마켓 글로벌이 5월 12일 통합 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인다. 명칭은 기존 지마켓글로벌

의 스마일클럽을 유지한다. 300만 명 이상의 총성도 높은 고객을 기반으로 한 인지도도 고려했다. SSG닷컴, G마켓, 옥션에서 무료배송, 상품 할인, 적립은 물론 플랫폼 특성에 맞는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요금은 G마켓·옥션 연 3만 원, SSG닷컴 월 3900원이다. 통합 멤버십 출시를 기점으로 SSG머니와 스마일캐시백 포인트 전환도 실시한다. 회사 측은 "SSG닷컴과 지마켓글로벌 간 시너지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자 그룹의 다양한 관계사를 잇는 '온·오프라인 에코시스템' 구축의 첫 단추"라고 했다.

LG엔솔, 1분기 영업이익 2589억 생산능력 확대 위해 7조 투자 계획



CEO 권영수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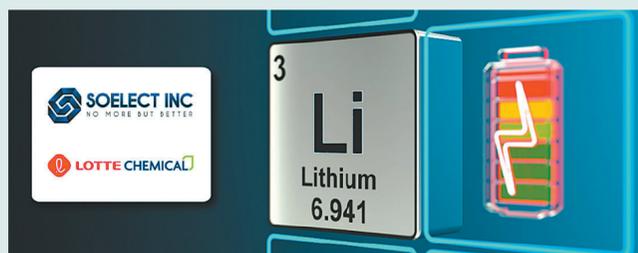
LG에너지솔루션이 27일 오전 실적 발표회를 열고 1분기 매출 4조 3423억 원, 영업이익 2589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4조 2541억 원) 2.1% 증가했고, 전 분기(4조 4394억 원) 대비 2.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3412억 원) 대비 24.1% 감소, 전 분기(757억 원) 대비 242% 증가했다. 영업이익율은 6%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 CFO 이창실 전무는 "EV용 원통형 배터리 수요 견조, 주요 원자재 가격의 평가 연동을 통한 시장 영향 최소화, 공정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바탕으로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글로벌 배터리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에 약 7조 원 수준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지난해(17조9000억 원) 대비 약 1조3000억 원 늘어난 19조2000억 원이다. 원성열 기자

롯데케미칼-美 소일렉트, '리튬메탈 음극재' 생산 합작사 설립

2025년까지 2억 달러 규모 시설 구축 기존 흑연·실리콘보다 성능 뛰어난 전기차 주행거리·배터리 수명 늘려



롯데케미칼-소일렉트 업무협약 그래픽 이미지. 사진제공 |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대표이사 부회장 김교현)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과 손잡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인 '리튬메탈 음극재' 핵심 기술 개발 및 생산에 나선다. 롯데케미칼은 차세대 배터리용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리튬메탈 음극재 및 고체 전해질 개발 스타트업인 '소일렉트(SOELECT)'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합작사(JV) 설립 및 2025년까지 미국 현지에 약 2억 달러 규모(약 2520억 원)의 기가와트급(GWh) 리튬메탈 음극재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리튬메탈 음극재는 에너지 밀도와 충전속도를 끌어올려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미래 배터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음극재를 리튬(금속)으로 대체한 리

튬메탈 배터리는 흑연·실리콘을 음극재 소재로 사용하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성능과 안정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롯데그룹은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지속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앞서 롯데그룹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인 롯데벤처스는 올해 2월 미국 제너럴모터스벤처스(GMV), 다올 인베스트먼트(구 KTB네트워크)와 함께 소일렉트에 11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투자한 바 있다. 롯데벤처스의 투자금은 롯데케미칼이

노베이션펀드 2호를 통해 조달했으며, 해당 펀드는 롯데케미칼이 총출자금 130억 원 중 76%인 99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이영준 롯데케미칼 전지소재사업단장은 "롯데케미칼이 가진 소재기술 및 글로벌 사업 역량과 소일렉트의 리튬메탈 음극재 기술을 접목해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며 "전기차 수요증가 및 배터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reno@donga.com

롯데호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프로모션

롯데호텔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호프스 위드 유'(Hopes with U)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나이키 흥대와 협업해 아이작 작곡 모자나 티셔츠를 디자인할 수 있는 '키즈 나이키 바이 유' 패키지를 진행한다. 나이키 흥대와 인접한 롯데호텔 서울, L7 흥대, 롯데시티호텔 마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실 한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국 6곳 롯데호텔에서는 아이 맞춤 패키지 '키즈 스페셜 데이'를 실시한다. 롯데호텔 서울은 서울 화현동 검벽돌 집에서 제과제빵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한다.

골든블루, '마스터블렌더 육성' 장학증서 수여

골든블루가 최근 부산 사무소에서 '마스터블렌더 육성 프로젝트'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장학증서 9월 부터 1년 간 스코틀랜드 헤리티엇트 대학교의 양조·증류학과 석사 과정을 밟는다. 골든블루는 1년간의 학비 전액, 체재비, 항공료 등의 지원과 함께 졸업 후 주류 분야에 대한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스터블렌더 육성 프로젝트는 양조 전문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해 진행되는 골든블루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주류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인재들에게 체계적인 마스터블렌더를 배출할 스코틀랜드 헤리티엇트 대학교의 양조·증류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donga.com